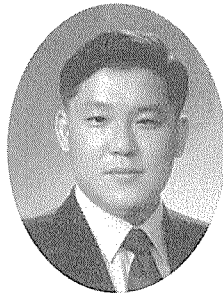


2000년 석유산업의 여건과 석유정책의 방향



윤 상 흠
〈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사무관 〉

머리말

97년말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우리 석유산업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며, 그에 따라 정부의 석유정책도 변화를 경험하였다. 90년대 들어서 중반까지는 주로 자유화와 대외개방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경제위기 이후에는 시장기능의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더 큰 비중이 두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그간의 공급자 위주의 정책도 소비자 편익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물론 아직도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에너지정책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외에도 소비자편익 제고라는 또다른 가치의 중요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

2000년의 석유산업 여건

고유가시대의 지속

97년말에 발생한 경제위기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아시아국가 전체로 이어졌으며, 세계 석유수요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의 경기침체는 석유소비의 대폭적인 감소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국제유가는 대폭 하락하여 80년대 중반과 같은 저유가시대가 다시 도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99년 봄부터 시작된 산유국의 감산과 함께 아시아지역의 경기회복은 국제유가의 놀랄만한 상승을 초래하여 1년도 채 안되어 두배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였다. 국제유가의 상승에 비해 국내유가의 상승이 소폭에 그쳤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충격의 정도가 적어서 그렇지 사실 mini oil shock라고 불러도 될만한 현상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고유가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3월말의 OPEC 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 주요 기관의 전망대로 일부 증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폭락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최근의 지배적인 견해는 OPEC 총회에서 증산결정은 이루어지되, 그 규모는 수급안정에 필요한 250만B/D에 못미치는 100~150

만B/D 정도가 될 것이고, 추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추가증산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경우 당장은 국제유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점진적인 하락을 유도하여 유가가 연착륙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 때에도 그 수준은 20불대 초반 정도로 예상되므로 앞으로도 상당기간 고유가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석유소비의 증가

우리나라의 석유소비자는 그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98년에는 경제위기의 여파로 15.6%라는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예상 외로 빠른 경기회복에 힘입어 99년에는 7.7% 증가하였고, 2000년에도 약 6.8% 증가하여 일평균 211만배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99년 석유수급현황 및 2000년 전망 〉

(단위: 천배럴)

	공 급			수 요			
	생산	수입	소계	내수	병커링	수출	소계
1999	911,418 (5.4)	191,679 (6.9)	1,103,097 (5.6)	721,724 (7.7)	49,046 (6.6)	298,173 (2.1)	1,068,943 (6.0)
2000	916,009 (0.5)	215,450 (12.4)	1,131,450 (2.6)	770,800 (6.8)	49,059 (0.01)	264,160 (Δ11.4)	1,084,010 (1.4)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부문별로 살펴보면, 특히 발전부문의 경우 전력소비 증가로 지난해 배연탈황설비가 이루어진 중유발전소의 이용이 확대되어 99년 대비 40% 이상의 대폭적인 증가를 보일 전망이며, 수송부문도 수송물동량 증가·건설경기 회복·여가활동 증가 등으로 7% 가까운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고, 산업부문은 산업용 연료유 소비와 석유화학용 납사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5%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유종별로는 발전용 소비와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연료유 소비증가로 B-C유의 소비가 10% 이상 증가하고, 보일러등유의 지속적인 소비증가로 등유소비도 약 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시아 산업경기 회복에 따른 석유화학제품의 수출확대로 납사소비는 6% 이상 증가할 전망이고, 경유도 화물수송차량 및 건설중장비 수요의 증가로 6%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휘발유는 유가상승과 LPG 차량의 운행증가로 5%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유통시장의 경쟁 심화

최근 석유유통시장의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덤핑판매를 비롯해서 보관출하, 이동판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는 물론 시장에서의 경쟁이 점점 격화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수록 소비자 보호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관리적 행정기능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다른 분야는 규제완화·자유화 등을 통해 정부기능을 축소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이거나, 유통시장의 문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쨌든 유통시장에서의 제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부에게 주어진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다.

2000년의 석유정책 방향

석유 안보태세의 강화

작년부터 시작된 국제유가의 급등은 정부의 석유위기 대응능력 제고노력을 시급한 과제로 만들었다. 물론 국제유가의 급등이 석유위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오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정부비축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다. 먼저 제3차 석유비축계획(95~2006)을 보완하여 비축사업의 추진들을 재정비할 것이며, 현재 56백만배럴에 불과한 정부비축유를 62백만배럴 수준으로 확대하고, 금년 6월 동해 비축기지를 준공함으로써 비축 시설도 현재 96백만배럴에서 97백만배럴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6월 한국석유공사가 노르웨이의 Statoil사와 체결한 공동비축계약을 금년에 재계약할 예정이고, 중동 산유국과도 신규로 공동비축계약 체결을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비축수준도 일부 제고될 경우 지속일수가 작년의 67일에서 금년에는 70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국제유가 급등시를 대비하여 유가완충자금 규모도 99년말 3,579억원에서 2000년에는 4,065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위기대응능력의 제고와 함께 위기대응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상황별 위기대응계획(contingency plan)도 마련할 계획이다.

석유안보를 위해서 중요한 과제이나 그간 다소 미흡했던 분야는 산유국과의 협력관계 강화이다. 그러나, 작년 10월 산자부 장관이 중동지역 주요 산유 3개국을 방문하여 이들 국가와 석유협력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양국간 석유협력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중동산유국과의 협력관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금년에는 이들 국가의 석유장관을 우리나라로 초빙하여 양국간 석유장관 회담 및 석유협력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작년에 마련한 협력발판을 활용하여 이를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미 금년 2월 사우디의 Al-Naimi 석유장관이 방한하여 산자부장관과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금년 5월에는 UAE의 석유장관이 방한할 계획이며, 쿠웨이트 석유장관도 금년중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4월에는 우리측 실무대표단이 사우디를 방문하여 실무협력위원회를 가질 계획이며, 상황에 따라 금년 4분기에 산자부장관의 사우디 방문도 추진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호교류 확대를 통해 석유의 안정적 공급 외에도 국제석유시장의 안정, 에너지 플랜트 수출 확대, 광물자원 분야의 협력강화 등 에너지분야 전

반에 걸쳐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석유산업의 경쟁촉진 및 시장효율성 제고

유통시장에서의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덤핑공급행위가 근절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덤핑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고, 덤핑공급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국제청에 조사를 요청할 것이며, 덤핑 방지를 위한 별도의 전산망 운영도 추진할 것이다. 한편, 그간 논란이 되어온 석유화학 부산물(C9)과 석유제품간에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 부산물을 석유제품에 추가하고 유통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금년 상반기중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할 것이다.

97년말 경제위기 이후 계속 문제가 되어 온 정제시설의 과잉현상은 금년에도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질유 분해시설·탈황시설 등 고도화설비의 부족으로 중질유·고유황유는 남아도는 반면, 경질유·저유황유는 부족하여 일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므로 앞으로의 방향은 추가적 정제설비 투자는 자제하되, 고도화설비 투자는 확충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필요시에는 업계 자율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과잉생산에 따른 수출물량 확대와 그로 인한 수출가격 하락은 우리나라에게는 상대적으로 국내가격을 비싸게 만들어 소비자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역시 공급과잉상태에 있는 이웃나라 일본 정유업계에도 수출마진 감소라는 피해를 주게 되어 국가간 협력관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석유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이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유업계가 사용하는 유가산정방식은 과거 유가자유화 이전에 정부가 사용하던 방식을 거의 그대로

로 답습하고 있어 그간의 여건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유가는 자유화 되었지만, 그 책정방식에 비판의 소지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정부의 임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석유류 가격체계의 개선

현행 석유류 가격체계의 문제점은 익히 알려진대로 유종별 상대가격구조가 불공평하다는 데 있고, 이는 유종별로 세율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가격의 왜곡은 소비의 왜곡을 초래하여 특히 휘발유에서 LPG로의 소비 이전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LPG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세부담의 불균형, 에너지수급의 애로, 세수 감소, 충전소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작년 10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석유가격구조를 개편하고 궁극적으로 자동차 연료사용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작년 11월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부처 국장들을 위원으로 하는 에너지가격 합리화기획단을 구성하였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통해 석유가격구조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고 금년 상반기 중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연구작업이 완료되면 금년 하반기중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관련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석유가격이 개편되면 차량에 대한 LPG 사용규제를 폐지할 것이다.

한편, 가격구조 개편으로 일부 유종의 가격이 조정되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는데, 이는 에너지절약형 내구소비재 구입, 고효율 기자재 구입, 대체에너지 사용 등에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부담증가효과를 상쇄하고 보다 강화된 소비절약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한다. 금년 상반기중 각계 여론을 수렴하고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한 세제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

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기 타

대한송유관공사는 작년 11월 자회사인 G&G 텔레콤을 매각하였고, 작년말 주식이치 평가를 완료한 바 있다. 금년에는 당초 계획대로 상반기까지 민영화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민영화시 특정 주주사의 경영권 지배가능성에 대비하여 송유관 운영에 대한 공익규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석유사업법 개정시 반영된 대로 석유제품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서 품질검사업무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검사기능 확충도 추진할 것이며, 유통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운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작년과 같은 급격한 유가상승현상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유가의 추이를 분석하고 전망할 수 있는 틀을 정비할 필요는 있으므로 이를 위해 에너지경제 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제석유정세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들을 선정하고, 각각의 변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제유가의 결정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국제유가 전망 및 국가석유전략 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맺음말

새천년을 맞이한 우리 석유산업의 과제는 무엇보다 경쟁력 강화일 것이다. 이미 자유화와 대외개방이 이루어진 지금 경쟁력 강화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 석유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 정제시설의 고도화, 적극적인 기술개발노력, 국제석유시장에의 능동적인 참여 등을 통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부도 이러한 업계의 노력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다하는 한편,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의 운영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